

시가 문학과 철학을 통해 본 퇴계와 율곡의 리더십

임재욱*

<차 례>

1. 서론
2. 퇴계와 율곡 시가 문학의 거리
 - 1) 자연을 대하는 관점
 - 2)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3. 퇴계와 율곡의 문학·철학·리더십
 - 1)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한 퇴계와 율곡의 시가 문학
 - 2) 시가 문학과 철학 사상을 통해 본 퇴계와 율곡의 리더십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되었다. 첫째는 퇴계와 율곡의 시가 문학의 차이점을 자연관과 인간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둘째는 시가 문학에 드러나는 두 작가의 차이점을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철학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며, 셋째는 문학과 철학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들이 발휘했던 리더십에 대해 조명하는 것이다. 논의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퇴계의 <도산십이곡>과 율곡의 <고산구곡가>에는 두 작가의 자연관과 인간관이 잘 드러난다. 퇴계가 자연의 보편적·상징적·불변적, 관념적 측면에 주목했던 것과 달리, 율곡은 구체적·가변적·실제적 측면에 주목했다. 또 퇴계가 자연에서 어떠한 이치나 이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면, 율곡은 거기에서 흥취를 느끼고 자연을 그 자체로 즐기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아울러 <도산십이곡>에서 퇴계가 자아를 향한 시선을 유지한다면서 자기 고백적 목소리로 노래한다면, <고산구곡가>에서 율곡은 타자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표현한다.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자연관에서 나타나는 두 작가의 차이는 이기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퇴계는 본질적 존재인 ‘理’를 중시하는 반면, 율곡은 ‘理’와 함께 현상적 존재인 ‘氣’도 중시하여 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氣’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전자는 자연 속에 내재된 이치에 주목하면서 관념적·상징적 자연을 표현하고, 후자는 현상으로서의 자연에 주목하여 현실적·구체적 자연을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흥취와 즐거움을 느끼며 자연 그 자체를 만끽하고자 하는 율곡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율곡이 표현한 흥취나 즐거움의 정서 등은 ‘氣’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七情’의 한 유형이거나 그와 관련된 감정이 때문이다.

두 작가의 시가 문학에 드러나는 인간관의 차이 역시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와 ‘사단’을 중시하는 퇴계의 입장에서는 모든 주체들이 자아와 동질적 성향과 자질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곧 타자를 위한 노래로도 얼마든지 바뀌어 읽힐 수 있다. <도산십이곡>이 자기 고백적 경향의 노래로도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 따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험과 생각을 위주로 하여 노랫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기’와 ‘칠정’을 중시하는 율곡의 입장에서는 모든 주체들은 자기 나름의 개성을 지닌 독자적 존재로 인정된다. 각자가 지닌 경험과 생각, 기질과 성향 및 감정은 그것대로 모두 존중될 필요가 있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율곡이 <고산구곡가>에서 고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함께 누리고자 ‘벗’들을 부르고 타자로서의 ‘살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퇴계와 율곡의 문학 및 사상적 차이는 리더십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퇴계의 리더십이 ‘理’와 그것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四端’ 중심의 리더십으로 절대적·당위적·규범적·이념적 성격을 갖는다면, 율곡의 그것은 ‘氣’와 그것의 발현으로 이루어지는 ‘七情’ 중심의 리더십으로 상대적·선택적·상황의존적·현실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율곡이 사람들에게 안내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자연이나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는 누구나 반드시 보고 느껴야만 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었으며, 그가 인도하고자 했던 ‘살림’들 또한 리더가 이끈다고 해서 그에 동화될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느낄 필요가 없는 자율적 주체들이었다는 점에서 퇴계의 경우와 구별된다.

□ 가고전시가,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이기철학(理氣哲學), 사단(四端), 칠정(七情), 리더십

1. 서론

본고의 주요 논의 대상인 <陶山十二曲>과 <高山九曲歌>는 조선시대의 사상계를 이끈 두 인물인 퇴계와 율곡이 남긴 연시조 작품이다. 두 작품은 소재나 문체 및 형식을 포함하여,¹⁾ 표현 방식이나 작품에 반영된 사상과 철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조동일은 <도산십이곡>이 ‘理發’로 인해 긴장감 넘치는 작품 세계를 성취한 데 비해, ‘氣發’에 근거한 <고산구곡가>는 흥취가 그리 크지 않고 작품의 긴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된 것은 전자가 산수의 흥취와 마음을 바루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바깥 그림은 잘 그렸어도 내면이 울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²⁾ 또 권정은 <도산십이곡>에는 보편적·추상적 자연이, <고산구곡가>에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 자연이 표현되어 있다고 했고,³⁾ 고정희는 퇴계와 율곡 시조의 차이를 가창과 음영, 대화와 독백, 구어와 문어, 직설(또는 상징)과 묘사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했다.⁴⁾ <도산십이곡>이 직설을,

1) 서원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비교 연구』, 『청계 김사엽 박사 송수 기념 논총』, 학문사, 1973, 289~311쪽에서 두 작품을 소재, 문체, 형식의 측면에서 비교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4판』, 제2권, 지식산업사, 2005, 344쪽.

3) 권정은 『자연시조의 구성공간과 지향의식』, 서울대 박사논문, 2004, 30~40쪽.

4) 고정희,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언어적 차이와 시가사적 의의』, 『국어국문학』 141, 2005, 201~221쪽.

<고산구곡가>가 묘사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 견해는 많은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⁵⁾

한편 성기옥은, <도산십이곡>이 문학성이 결여된 무미건조한 작품이 아니라 시상이나 이미지의 병치·대조·확산 등의 원리가 활용되어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고 예술성이 풍부한 작품이라고 한 바 있다.⁶⁾ 또 임주탁은, <도산십이곡>에는 진리란 고인이 발견하는 것이어서 개별 주체는 그것을 학습하고 답습할 뿐이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고, <고산구곡가>에는 진리와 세계의 아름다움을 자아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다.⁷⁾ 이 견해를 수용한 박정민은, <도산십이곡>에는 추상적·관습적·상징적 언어가, <고산구곡가>에는 구체적·현재적·실질적 언어가 사용되었고, 전자가 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다면 후자는 동적 이미지를 형상화한다고 한 바 있다.⁸⁾

그리고 두 작품에서 보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는 흔히 두 인물의 사상적 차이로 설명된다. 주지하다시피 퇴계가 이기이원론적 입장에서 ‘理’를 중시하는 반면, 율곡은 이기이원적 일원론의 입장에서 ‘理’와 ‘氣’를 모두 강조한다. 이러한 사상적 차이에서 보면, <도산십이곡>에 보편적 진리와 이치가 강조되고 관념적·추상적 자연이 표현된 것은 퇴계가 본질

5) 조창환, 「퇴계·율곡의 시관과 시조」, 『연구논문집』 9권 2호, 울산공과대학, 1978, 119~126쪽; 김혜숙, 「<고산구곡가>의 정신의 높이」,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527~531쪽; 신영명, 『사대부 시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74쪽; 김대행, 「시조론」, 『고시조작가론』, 한국시조학회, 백산출판사, 1986, 163쪽; 신연우 『사대부 시조의 유학적 일상성』, 이화, 2000, 102~128쪽.

6)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119~227쪽.

7) 임주탁, 「우리말 노래 창작의 사상적 기반」, 『국문학연구』 제16호, 국어국문학회, 2007, 78~83쪽.

8) 박정민,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2~19쪽.

적 존재인 理를 중시했기 때문이고, <고산구곡가>에 이치보다는 작자가 접한 현실 자체가 표현되고 변화하는 구체적 자연이 묘사된 것은 율곡이 상대적으로 현상적 존재인 氣를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두 작품의 작가가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는, 두 작품에서 퇴계와 율곡이 자연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는가, 또 두 작가는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를 비교하여 검토해보면 두 작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 방식과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퇴계와 율곡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이자 사상적·정치적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상에 드러나는 차이점들은 그들의 사상 및 철학과 그들이 학문·교육·정치에서 발휘한 리더십과도 일정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서는 작품 문면에서 확인되는 차이점들을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철학 사상과 관련지어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발휘했던 리더십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2. 퇴계와 율곡 시가 문학의 거리

1) 자연을 대하는 관점

본고에서 먼저 주목하는 것은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에 드러나는 자연에 대한 두 작가의 관점의 차이이다. 선행연구에서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도산십이곡>에는 상징적·불변적·관념적 자연이 표현된 반면,

구산구곡가에는 구체적·가변적·현실적 자연이 표현되어 있다. 두 작가는 자연의 서로 다른 측면 또는 속성에 주목한 것이다.

퇴계는 <도산십이곡>에서 관념적·규범적 자연을 표현한다. 인간의 이념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자연을 관념화하는 것이다. 『言學』 其五 연의 “靑山”과 “流水”가 대표적 사례이다. 해당 작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靑山은 옛데흐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옛데흐야 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호리라

- 陶山六曲之二(言學) 其五⁹⁾ -

여기서 원용되고 있는 자연의 시어 “靑山”과 “流水”는 자연자체로서의 독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산 앞에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도 아니다. “청산”과 “유수”를 시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자연의 영속성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청산”과 “유수” 자체의 영속성보다는 인간적 가치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주목되는 것이다. 인간의 이념적 가치가 투사된 자연의 관념성은 규범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¹⁰⁾

春風에 花滿山호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 | 사롭과 흥가지라
호물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너 그지 이슬고

- 陶山六曲之一(言志) 其六 -

9) 『陶山詩(陶山六曲)』(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하의 <도산십이곡>도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陶山詩(陶山六曲)』의 표기에 따라 인용한다.

10)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2001, 270쪽.

『言志』其六에 표현된 자연물들인 “春風에 花滿山”, “秋夜에 月滿臺”, “魚躍鳶飛 雲影天光”도 관념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春風에 花滿山”, “秋夜에 月滿臺”는 ‘네 계절의 아름다운 흥취’(四時佳興)를 느끼기에 가장 적합한 풍광이기에 가져온 대표 사례일 뿐, 어떠한 실존성이나 구체성을 띠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도연명 <四時>의 “春水滿四澤”이나 “秋月陽明輝”와 교체해 놓고 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작품 속의 자연이 대표성·상징성을 띠는 것은 “魚躍鳶飛”(천지 조화의 오묘함)과 “雲影天光”(만물이 天性을 얻는 이치)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들은 하늘과 땅에 가득한 이치를 나타내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상징적 자연물이기 때문이다.¹¹⁾

이에 비해 율곡의 <고산구곡가>에 표현된 자연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특징을 띤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율곡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고산에서 그때 그 자리에 실제로 있던 것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러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구절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冠巖¹²⁾에 히 빗쨌다, 平蕪에 닉 거든이 遠山이 글림이로다 (一曲)
花巖¹³⁾에 春晚커다 (二曲)

11) 『言志』其四와 其五에 표현된 “幽蘭이 在谷히니 自然이 들디 道해”의 ‘골짜기에 핀 그윽한 난초’, “白雲이 在山히니 自然이 보디 道해”의 ‘산에 걸린 흰 구름’, “山前에 有臺하고 臺下에 有水ㅣ로다”의 ‘산 앞의 누대’나 ‘누대 앞의 물’ 등도, 실존적인가 아니면 관념적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있지만, 어떠한 구체성 띠거나 다른 곳에 있는 자연물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표성·보편성·상징성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난초’, ‘구름’, ‘누대’, ‘강’ 등은 보기 좋고 듣기 좋아 흥취가 일어나게 하는 자연의 대표적 사례로 경치 좋은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을 법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12) 관암 : 고산(高山)에 있는 바위 이름. <고산구곡가>의 지명에 대한 주석은 권두환, 『고전시가론』, 해냄, 1997, 177~179쪽 참조.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13) 화암 : 고산(高山)에 있는 바위 이름.

翠屏¹⁴에 넘 퍼졌다, 綠樹에 山鳥는 下上其音 하는 적의, 盤松이 愛¹⁵
 淸風¹⁶이 너름 景이 업세라 (三曲)
 松崖에 히 넘거다, 潭心 巖影은 온갓 빗치 즘것세라 (四曲)
 隱屏이 보기 조희, 水邊精舍는 瀟灑함도 ㄴ이 업다 (五曲)
 釣峽에 물이 넘다 (六曲)
 楓岩에 秋色이 좇타, 淸霜이 얹게 친이 絶壁이 錦繡ㅣ로다 (七曲)
 琴灘¹⁶에 돌이 붉다 (八曲)
 文山에 歲暮커다, 奇岩怪石이 눈 쪽에 못첫세라 (九曲)¹⁷

이 작품에서 자연물을 표현한 구절들이 실경 묘사로 보이는 것은, 먼저 실제 지명이나 자연물의 명칭이 많이 쓰이고 있고, 둘째 실제로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자연물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비유와 비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실제 자연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보이는 것들은 “冠巖”, “花巖”, “翠屏”, “琴灘” 등이다. 이것들 외에 “松崖”, “隱屏”, “楓岩”, “文山” 등도 실제의 절벽이나 바위, 산 등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고유명사가 빈번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 표현된 자연물들은 <도산십이곡>의 그것보다 실존성을 띠는 것으로 읽힌다. 일례로 “花巖에 春晚커다”(〈고산구곡가〉)와 “春風에 花滿山”(〈도산십이곡〉)은 묘사의 정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지만, 전자에는 “花巖”이라고 하는 실제 사물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쓰

14) 취명 : 화암(花巖)에서 3리(里) 거리에 있는 절벽.

15) 愛 : 『栗谷先生全書』(卷之二)에 수록된 宋時烈의 한역시에는 이 글자가 “受”로 되어 있다.

16) 금탄 : 여울의 이름.

17) 김수장, 『海東歌謠』, 경성제국대학, 1930, 15~18쪽. 이하의 <고산구곡가>도 『海東歌謠』(경성제국대학, 1930)의 표기에 따라 인용한다.

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성의 정도는 후자보다 전자가 강한 것이다.

게다가 <고산구곡가>에는 비유나 비관습적 표현도 <도산십이곡>보다 많은 양상을 보인다. <고산구곡가>에서는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 “遠山이 글림이로다”, “絶壁이 錦繡 | 로다”와 같은 은유가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도산십이곡>에서는 그와 유사한 표현을 발견할 수 없다. 아울러 <고산구곡가>에는 “平蕪에 님 거든이 遠山이 글림이로다”, “綠樹에 山鳥는 下上其音 흐는 적의”, “盤松이 愛淸風흔이 녀름 景이 업세라”, “潭心 巖影은 온갖 빗치 겹것세라” 등과 같이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을 포함한 구절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 역시 <도산십이곡>과는 다른 점이다.

이렇게 퇴계와 율곡은 자연에서 주목한 지점이 서로 달랐다. 전자가 자연의 보편적·상징적·불변적·관념적 측면에 주목했다면, 후자는 구체적·가변적·실제적 측면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런데 두 작가의 자연에 대한 태도나 관점의 차이는 이런 데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자연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 하는 점에 따라서도 두 작품은 차별성이 드러난다.

퇴계는 자연에서 어떠한 이치나 이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한다면 율곡은 거기에서 흥취를 느끼고 자연을 그 자체로 즐기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두 작품에서 각각 두드러지는 이치와 흥취는 작품 전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띤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념성이나 상징성을 띠는 <도산십이곡>에서의 자연은 구체적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떠한 이치나 원리 또는 가치를 함유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인용한 바 있는 「言學」其五 “靑山은 엇데하야 萬古에 프르르며 / 流水는 엇데하야 晝夜에 굿디 아니는고”에서 ‘靑山’과 ‘유수’는 자연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퇴계가 주목하는 것은 자연 현상 자체라기보다는 그 속에 내재한 영원성이라는 원리와 가치이다. 퇴계는 其五의 종장에서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호리라”라고 하면서, 자연 속에서 확인한 영원성이라는 가치를 학문을 향한 굳은 다짐으로 연결하여 노래한다. 그러므로 결국 이 경우의 자연은 인간적 원리와 가치를 확인하는 배움(學)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퇴계가 자연 속에서 이치나 인간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뜻을 노래한 『言志』 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言志』 其四와 其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幽蘭이 在谷호니 自然이 듣디 玆해
白雲이 在山호니 自然이 보디 玆해
이 등에 彼一美人를 더욱 닛디 못호애

- 陶山六曲之一(言志) 其四 -

春風에 花滿山호고 秋夜애 月滿臺다
四時佳興 | 사롭과 흥가지라
호들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늬 그지 이슬고

- 陶山六曲之一(言志) 其六 -

물론 其四나 其六에서 자연이 이치나 가치를 함유한 존재나 배움(學)의 대상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두 편 모두에 자연 속에서 누리는 흥취와 즐거움도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퇴계가 노래한 “泉石膏肓”(『言志』 其一)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감흥에서 온 것일 수 있다. “幽蘭이 在谷호니 自然이 듣디 玆해 / 白雲이 在山호니 自然이 보디 玆해”에서의 “듣디 玆해”와 “보디 玆해”라든가 “四時佳興 | 사롭과 흥가지

라”에서의 “四時佳興”이 모두 그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때 느끼게 되는 감흥을 노래한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등에 彼一美人을 더욱 닳디 못하에”라고 노래한 其四의 종장에서 보듯, 그는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彼一美人”으로 표현된 ‘임금’을 잊지 않는다. “彼一美人”, 곧 ‘임금’은 ‘忠’이라고 하는 당대의 절대적 가치로서의 유교 이념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양상은 其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퇴계는 초장과 중장에서, “春風에 花滿山 하고 秋夜에 月滿臺라”로 표현한 아름다운 경치에서 “佳興”으로 표현된 흥취를 느끼며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노래한다. 그에 이어 종장에서는 천지에 가득한 이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전통적 어구 “魚躍鸞飛”(천지 조화의 오묘함)와 “雲影天光”(만물이 天性을 얻는 이치)를 가져와, 자연과 하나 되는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는 상황에서도 그 속에 구현된 진리와 이치를 잊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율곡의 <고산구곡가>에서는 흥취와 이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도산십이곡>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도산십이곡>에서는 흥취보다는 이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고산구곡가>에서는 이치보다 흥취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산구곡가>에도 자연을 이치 탐구의 학문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드러나는 구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구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어쭙어 武夷를 想像하고 學朱子를 ㅎ리라 (序曲)

이 中에 講學도 흥연이와 詠月吟風 ㅎ을이라 (五曲)

전체 10개 연 가운데에서 一曲의 “學朱子를 ㅎ리라”와 五曲의 “이 中

에 講學도 扠연이와” 정도가 학문적 의지를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학문의 대상은 자연 현상 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學朱子”와 “講學”에 포함된 “學”의 대상은 자연 자체라기보다는 그 속에 내재한 원리나 세계와 존재의 이치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산구곡가>의 경우 이 둘 제외한 나머지 구절에서는 대개 扠취를 느끼면서 자연 그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松間에 綠樽을 녹코 벗 온 양 보노라 (一曲)

盤松이 愛淸風扠이 녀름 景이 업세라 (三曲)

林泉이 김도록 杻扠니 興을 계워 扠노라 (四曲)

이 中에 講學도 扠연이와 詠月吟風 扠올이라 (五曲)

나와 고기와 杼야 더욱 즐기노고, 黃昏에 낙대를 메고 帶月歸를 扠노라 (六曲)

寒岩에 扠자 안자서 집을 닛고 잇노라 (七曲)

古調를 알리 업슨이 扠자 淸여 扠노라 (八曲)

위에 인용한 구절들은 율곡이 자연 속에서 扠취를 느끼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특히 “興을 계워 扠노라”(四曲)와 “杼야 더욱 즐기노고”(六曲) “扠자 淸여 扠노라”(八曲)에서는 그가 자연 속에서 느낀 감扠과 즐거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율곡은 一曲과 八曲에서 “綠樽”으로 표현된 ‘술’과 “玉軫金徽”가 가리키는 ‘음악’을 노래하며 그것들을 자연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을 감扠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율곡이 ‘술’과 ‘음악’을 함께 노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보인다. ‘술’과 ‘음악’이 따를 때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배가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같은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퇴계는 ‘술’과 ‘음악’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정서를 복돋우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는 방해 요소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연을 천지와 세계의 이치가 내재된 엄숙한 대상으로 바라보던 퇴계의 자연관 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2)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에는 퇴계와 율곡이 인간(자아/타자)을 바라보는 관점도 반영되어 있다. <도산십이곡>에서의 퇴계가 자기 고백적 목소리로 노래한다면, <고산구곡가>에서의 율곡은 타자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표현한다.

<도산십이곡>에서 시적 화자는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言志 其一·其二·其五, 言學 其一·其四) 간혹 타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시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들은 대개 나와 구별되는 실존적 주체로서의 순수한 타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言志 其三·其四·其六) 또 개별 주체로서의 타자가 상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자아가 포함된 개념인 ‘우리’로 표현된다.(言學 其二·其五) 아울러 주체나 청자가 모든 사람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 역시 자아가 무한히 확장된 결과일 뿐이다.(言學 其三·其六)

먼저 위에서 언급한 마지막 경우, 주체나 청자가 모든 사람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부터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 못 뵈
古人를 못 봐도 너던 길 알팍 잇네
너던 길 알팍 잇거든 아니 너고 엇덜고

- 陶山六曲之二(言學) 其三 -

愚夫도 알며 헛거니 께 아니 쉬운가
 聖人도 몰다 헛시니 께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냇 둥에 늙는 주를 몰래라

- 陶山六曲之二(言學) 其六 -

성기옥의 지적처럼 학문에 대한 다짐을 노래한 두 연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⁸⁾ 그렇기는 하지만 其三에서 “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 못 뵈”라고 하면서 주체를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이라든가 其六에서 “늙는 주를 몰래라”라고 하여 늘그막에 이르기까지 학문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던 퇴계의 삶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 나타나는 점 등을 통해 보건대, 이 두 연 역시 기본적으로는 퇴계 자신의 삶과 학문적 염원을 표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퇴계는 자신의 학문적 태도를 노래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것을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또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도산십이곡>에는 퇴계 자신이 아닌 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자아뿐 아니라 타자까지 포괄하는 존재를 지시하는 시어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彼一美人”, “許多英才”, “皎皎白駒”, “사름”, “우리” 등이 그러한 시어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의미를 자세히 고찰하면 시적 자아와 구별되는 순수한 타자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彼一美人 : ‘임금’을 가리키는 이 시어는 개별적·실존적 인격체보다는 ‘忠’이라는 이념을 나타내는 이념적·상징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구별되는 개인으로서의 타자로 보기 어렵다.

18) 성기옥, 앞의 논문, 2002, 213쪽.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언학에서 퇴계는 배움을 세 개의 층위로 노래하고 있다. 퇴계 자신의 배움(1·4연), 학생들의 배움(2·5연), 모든 사람의 배움(3·6연)이 그것이다.”

許多 英才: 성기옥은 이것을 兼善과 교육의 대상으로 보았다.¹⁹⁾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것이 포함된 구절 “天下에 許多 英才를 소겨 말숨홀가”를 교육적 신념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문맥상의 근거가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이 구절이 포함된 其三 연이 言學이 아니라 言志를 노래한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人性이 어디다 흐니 진실로 올흔 마리”에서 “人性이 어디다”고 말한 주체를 성현으로 볼 때,²⁰⁾ 여기에 이어지는 “天下에 許多 英才를 소겨 말숨홀가”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성현의 말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許多 英才”는 작자 자신을 제외한 순수한 타자라기보다는 작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 명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은 “성현께서 인간의 성품이 어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진실로 옳은 말씀이라네. 설마 성현께서 천하의 나를 포함한 수많은 영재들을 속여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풀이할 수 있다.

여기서 퇴계가 과연 스스로를 가리켜 “英才”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작자가 스스로를 ‘聖賢 또는 賢者가 타는 망아지’를 뜻하는 “皎皎白駒”로 칭하는 경우가 <도산십이곡>의 『言志』 其五 연의 “엇다다 皎皎白駒는 머리 밋숨 흐느고”와 정극인의 한시 <致仕吟>²¹⁾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²²⁾ “英才”도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19) 성기옥, 앞의 논문, 2001, 254쪽.

20) 위의 논문, 255쪽.

21) 歸去來思斷斷臣 潤邊絲柳眼初均 洋洋泌水泰山麓 皎皎白駒空谷春(丁克仁, 致仕吟, 『不憂軒集』 권1 9a-10a; 『한국문집총간』 9, 23쪽.) 위의 논문, 261쪽에서 재인용.

22) 성기옥은 『한어대사전』의 뜻풀이를 근거로 하여, 이황의 <陶山十二曲>과 정극인의 <致仕吟>에서의 “皎皎白駒”가 ‘왕의 곁을 떠난 隱者’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위의 논문, 261쪽.)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皎皎白駒：‘賢者 또는 성현이 타는 망아지’의 뜻인데 많은 논의에서 퇴계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성기옥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현자나 성현뿐 아니라 ‘隱者’를 비유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²³⁾

사름：『言志』其六 연의 “四時 佳興이 사름과 흥가지라”에서 “사름”은 일반 범칭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나’를 대상화시킨 ‘사람’이다. 이런 형태의 대상화 수법은 시에 노래된 경험을 ‘나’에 가두지 않고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노릴 때, 그것을 위해 ‘나’를 대상화함으로써 자아와의 심미적 거리를 확보하려고 할 때 흔히 사용 되는 수법이다. 조선 초기의 원천석이 폐허가 된 고려 궁궐터를 보고 “夕陽에 지나는客이 눈물겨워 흥노라”라고 노래할 때 원척석 자신을 ‘객’으로 대상화시키는 것 역시 같은 수법이다.²⁴⁾ 그러므로 이 ‘사름’도 시적 자아와 구별되는 순수한 타자로 볼 수 없고, 좁게는 자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넓게는 자아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言學』其二 연의 “우리는 耳目聰明 男子로 龔瞽 곧디 마로리”에서의 “우리” 또한 ‘나’가 포함된 대명사, 곧 일인칭 복수 대명사이다. 여기서도 시적 화자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자아를 향한다. “龔瞽 곧디 마로리”라는 다짐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과 권장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희망과 권장도 기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다짐에서부터 출발한다.²⁵⁾

23) 위의 논문, 261쪽.

24) 위의 논문, 263쪽.

25) 그 외에 시적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시어로 “龔者”, “瞽者”, “古人”, “愚夫”, “聖人” 등도 쓰이고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개별적 주체로서의 타자와는 무관한 존재들이다. 『言學』其二 연의 “龔者”와 “瞽者”는 실제의 인물 또는 독자적 의미를

이렇게 <도산십이곡>은 전체적으로 자기 고백적 성격을 지니며, 기본적으로 퇴계 자신을 향한 노래로 읽힌다. 『言學』 편이 교훈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에 따라 타자를 향한 발언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퇴계는 자신을 향한 목소리로 그러한 교훈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²⁶⁾ 스스로의 삶과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독자들이 화자의 목소리와 생각에 깊이 이끌려 동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퇴계의 이러한 수법은 자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표현한 『言學』 其四나 其六 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이 문학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법이 되었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시에 현자로 칭송되던 퇴계 같은 대학자가 하는 솔직한 자기 고백을 듣게 될 때 독자들은 거기에 감화되어 자연스레 진정한 배움의 길을 가고자 다짐하게 되었을 터이기 때문이다.²⁷⁾

<도산십이곡>과 달리 <고산구곡가>에는 타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표명된다. 물론 <고산구곡가>에도 시적 화자가 홀로 나타나는 곳은

지니는 존재가 아니라 배우지 않음으로써 말미암은 무지의 위험성을 깨우치기 위해 끌어들인 가정적 비유체들이다. 그리고 『言學』 其三의 “古人”은 聖賢을 지칭한다. 아울러 『言學』 其六의 “愚夫”와 “聖人” 역시 학문의 대상인 道의 불가사의한 본질, 깨우치기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도의 오묘한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끌어들인 가정적 비유체에 가까운 것들로, 실존적 존재이자 개별적 주체이면서 자아와의 소통 대상인 타자와는 무관한 존재들이다.(위의 논문, 267~271쪽 참고.)

26) <도산십이곡>의 자신을 향한 고백적 목소리는 <고산구곡가>와 분명하게 대비되는 지점 중 하나이지만, 정철의 <훈민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훈민가> 역시 교훈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 작품인데, 거기에는 타자를 향한 목소리와 타인을 가리키는 시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고산구곡가>와 <훈민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비교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27) <도산십이곡>의 자기 고백적 목소리가 교훈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 수법이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없지만, 그보다 먼저 이러한 목소리는 퇴계의 삶의 지향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및 사상적 성향이 투영되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한다.

많이 보인다. 三曲, 四曲, 五曲, 六曲, 七曲 등 많은 연에는 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타자를 가리키는 시어도 비교적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서두에 해당하는 첫 연에 나오는 “살림”과 “벗님네”, 一曲의 “벗”, 二曲의 “살림”, 八曲의 “古調를 알 리”, 九曲의 “遊人” 등이 그러한 시어들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도산십이곡> 『言志』 其六의 “四時 佳興이 사롬과 흥가지라”에서 “사롬”은 자아를 대상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시어인데, <고산구곡가>에도 같은 시어가 두 차례 등장한다. 二曲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二曲은 어드미고 花巖에 春晩커다
 碧波에 곯출 석위 野外로 보내노라
 살림이 勝地를 몰온이 알게 흥들 엇더리

- 高山九曲歌 -

그러나 <도산십이곡>에서와는 달리 여기서의 “살림”은 작자 자신과는 구별되는 순수한 타자로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율곡은 “勝地”를 알고 있는 자신과 그것을 모르는 “살림”을 구별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승지”를 알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흥취와 즐거움을 타인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율곡에게 있어 “살림”은 자아와 구별되는 개별적 주체이자 자아가 발견한 세계를 함께 누리면서 소통하기를 바라는 존재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벗님네”, “벗”, “古調를 알 리”, “遊人” 등도 모두 “살림”과 같은 성격과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퇴계와 율곡의 문학·철학·리더십

1)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한 퇴계와 율곡의 시가 문학

위에서 살핀 바, 퇴계와 율곡의 문학 작품에 드러나는 자연관과 인간관의 차이는 먼저 사상 및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자연관에서 나타나는 두 작가의 차이는 이기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계는 본질적 존재인 ‘理’를 중시하는 반면 율곡은 ‘理’와 함께 현상적 존재인 ‘氣’도 중시하여 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氣’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전자는 자연 속에 내재된 이치에 주목하면서 관념적·상징적 자연을 표현하고, 후자는 현상으로서의 자연에 주목하여 현실적·구체적 자연을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자연 속에서 이치를 떠올리고 학문적 태도를 잃지 않는 퇴계의 입장과 그 속에서 흥취와 즐거움을 느끼며 자연 그 자체를 만끽하고자 하는 율곡의 입장도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율곡이 국문시가에서 자연과 함께 표현한 흥취나 즐거움, 그리움의 정서 등은 ‘七情’(喜怒哀懼愛惡慾)의 한 유형이거나 그와 관련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칠정’을 ‘氣質之性’이라 하여 ‘氣’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칠정은 자연적 감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것은 ‘本然之性’이자 ‘理’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도덕, 윤리적 감정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四端’(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과 구별되는 것이다.²⁸⁾

28) ‘四端’이 ‘理’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氣’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퇴계는 ‘四端’을 “理發者” 또는 “理發而氣隨者”로, 七情을 “氣發者” 또는 “氣發而理乘者.”라고 설명했다.(채무송, 『퇴계·율곡 철학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99~104쪽.) 퇴계의 관점에서 보면 ‘四端’은 ‘理’에, ‘七情’은 ‘氣’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입장에서라면 자연 속에서 유교적 이념이나 인간적 가치 혹은 이치를 따지기보다 ‘칠정’과 관련이 깊은 흥취, 즐거움, 그리움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자연 그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두 작가의 시가 문학에 드러나는 인간관의 차이 역시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퇴계 시가에서는 자기 고백적 성격과 자신을 향한 목소리가 지배적인 데 반해, 율곡의 시가에서는 자신을 향한 목소리와 함께 타자를 향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표출된다. 그리고 작품 속에 드러나는 자아 및 타자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理’를 중시하는 퇴계는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인 ‘四端’과 ‘七情’ 중 ‘四端’을 보다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퇴계 철학의 관점에서는 도덕이나 윤리와 관련된 감정이자 ‘本然之性’인 ‘四端’을, “理發者” 또는 “理發而氣隨者”로 설명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理’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단’을 ‘이’로 간주할 때 그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동질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 근원, 본질과 관련된 개념으로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 두루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희와 율곡의 ‘이’와 ‘기’에 관한 명쾌한 규정인 “理同氣異”나 “理通氣局”도 ‘이’의 그러한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가 그러한 성격을 띠다면 ‘이’에 해당하는 ‘사단’ 역시 ‘이’와 같은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퇴계 철학의 관점에서처럼 ‘칠정’보다는 ‘사단’에 의거해 인간을 바라볼 때는 개별적 주체들의 차별성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하게 마련이다. 각 주

체들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 감정이나 고유한 성격보다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만 하는 자질이나 원칙에 따라서 자아와 타자를 포함한 인간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나와 남은 같은 존재가 되고, 나를 미루어 남을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자아의 경험과 깨달음은 곧 타자의 경험과 깨달음이 될 수 있다.

퇴계 시가가 타자를 언급하지 않은 채, 자아를 향한 목소리에 의거하면 서도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다. 퇴계의 입장에서는 ‘사단’과 ‘이’를 인간을 바라보는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들을 동질적 존재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에 관한 노래만으로도 시가의 효용과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퇴계는 그러한 관점에 따라 나에 관한 노래를 부르되, 남들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개별적이고 특수한 문제보다는 남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경험과 생각을 위주로 하여 노랫말을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율곡과 같이 상대적으로 ‘氣’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단’보다는 ‘기’에 해당하는 ‘칠정’을 인간을 바라보는 중요한 잣대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을 터인데, ‘기질지성’인 ‘칠정’은 자연적 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주체들을 동질정보다는 이질성,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모든 주체들은 자기 나뉠대로의 개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고, 각자가 지닌 경험과 생각, 기질과 성향 및 감정은 그것대로 모두 존중될 필요가 있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율곡은 타자를 자아와 같은 것만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니지 않은 어떤 것을 지니고 있고 또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가지지 못하기도

한 존재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지닌 것을 남들과 공유하고 남들의 경험과 생각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서, 그러한 자아와 타자의 소통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됨에 도달하는 경지에 이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고산구곡가>에서 고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함께 누리고자 ‘벗’들을 부르고 타자로서의 ‘살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다.

2) 시가 문학과 철학 사상을 통해 본 퇴계와 율곡의 리더십

지금까지 살핀 퇴계와 율곡의 문학 및 사상적 차이는 리더십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퇴계와 율곡은 당대 사상, 정치, 학문의 리더들이었던 만큼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에도 그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던진 교훈 또는 교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두 작품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모두 자연과 학문에 관한 것이지만, 두 작가가 작품을 통해 청자에 해당하는 당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하고자 했고 또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자 했는가 하는 점이나 당시의 청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는 점 등에서 보면 퇴계와 율곡이 발휘하고자 했던 리더십에 일정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견 ‘이’와 ‘사단’에 의거하여 개별 주체들의 동질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홀로됨을 즐기고 자아를 인간을 바라보는 준거나 출발점으로 여겼던 퇴계의 생각보다는, 타자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그들과의 소통·합일·화합에 도달하고자 했던 율곡의 생각이 현대적 리더십에 더 적합한 사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보편적인 리더십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크게 둘로 나뉘기도 한다.

긍정적인 리더십의 속성	부정적인 리더십의 속성	29)
신뢰할 만한, 공정한, 정직한, 선견지명이 있는, 계획성이 있는, 격려하는, 긍정적인, 다이내믹한, 동기를 부여하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기가 부여된, 의지할 수 있는, 명석한, 결단력 있는, 효과적으로 하는, 윈-윈 문제 해결 방식, 소통을 잘 하는,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관리적으로 능숙한, 조정하는, 팀을 조직하는, 우수성을 지향하는	혼자 있는, 비사교적인, 비협조적인, 쉽게 짜증내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무자비한	

위의 부정적 리더십의 속성에 속하는 많은 것들, 예를 들면 “혼자 있는”, “비사교적인”, “자기중심적인” 등이 <도산십이곡>에서 확인되는 퇴계의 삶과 사고의 특성이라면, 긍정적 리더십에 속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소통을 잘 하는”과 같은 속성은 <고산구곡가>에 드러나는 율곡의 삶과 사고의 성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퇴계는 당시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인물이었을까? 반대로 율곡은 당대 리더가 되기에 보다 적합한 인물이었을까?

현대적 리더십의 관점에 볼 때는 퇴계를 부정적, 율곡을 긍정적 인물로 보는 것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실제로 율곡이 학자이면서도 정치인으로서 당대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백성들을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것과 달리, 퇴계는 과거에 급제한 34세 때(1534)부터 49세 때(1549)까지 십여 년간 관료로서 정치에 몸담기도 했지만, 43세(1543) 이후로는 임명과 사퇴로 점철된 인생을 살며 정치가가 되기보다는 학자가 되기를 소망했고 정계에서 물러난 뒤에는 도산에 은거하면서 학문과 교육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정치보다 학문을 중시했던 퇴계보다는 학자인 동시에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한 율곡의 삶의 행로가 현대적 리더십

29) 피터 G. 노스하우스, 『리더십입문 제2판 - 개념과 실천』, 이용철 외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3, 8쪽.

에는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도 현대적 리더십의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까? 퇴계와 율곡은 모두 학문과 교육 및 정치를 통해 사람들을 보다 바람직하고 안락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이 문제 역시 그들의 사상과 문학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퇴계가 <도산십이곡>을 통해 당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했고, 또 그들을 이끌어 도달하게 하고자 했던 지점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유교적 이념과 道,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 세계였다고 할 수 있다. 퇴계가 자연 속에서 노닐면서도 ‘임금’(“彼一美人”)과 ‘세상에 가득한 이치’(“魚躍鵞飛, 雲影天光”)를 떠올리는 것은 그것들이 사람들을 이끌 최선의 기틀이자 방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하려면 먼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특정 주체가 절대적 가치인 유교 이념과 세상의 이치를 배워 지극한 선과 도를 체득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리더가 올바르게 서면 구성원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논리다. 퇴계에게 있어 자아와 타자는 구별이 없는 존재인 만큼 리더와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도 동질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또 리더가 만인이 구유해야 할 자질을 먼저 확고하게 지닐 때 조직 전체의 통합과 목표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³⁰⁾ 바로 ‘理’와 그것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四端’ 중

30) 이러한 점은 <도산십이곡>뿐 아니라 퇴계가 말년에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인 <무진 육조소>에도 잘 드러난다. 퇴계는 이 글에서 “환관과 궁녀의 인간과 참소를 막을 것”과 같은 구체적, 현실적 방침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仁과 孝를 다할 것”, “성학에 힘쓸 것”, “도술을 밝힐 것”, “수양과 반성을 정성스럽게 할 것” 등과 같은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인격적 수양에 힘쓸 것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최영진, 『퇴

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퇴계와 철학적, 문학적 경향이 달랐던 율곡은 리더십도 그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율곡은 ‘氣’를 강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발휘했던 리더십도 구체성과 현실성을 띤다. 그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도달하게 하고자 했던 지점 역시 자연 현상 자체였으며 청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것도 자연 속에 담긴 보편적 이치나 이념보다는 그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흥취였다. 율곡의 입장에서는 이치는 언제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것이고, 일정한 정신적 수준에 도달한 주체에게라면 스스로 이르게 (“理到”)³¹⁾ 마련이므로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연 현상과 그때 그곳에서가 아니면 놓칠 수밖에 없는 감흥을 사람들이 즐기고 느끼도록 인도하는 것이 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율곡의 리더십은 ‘氣’와 그것의 발현으로 이루어지는 ‘七情’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율곡이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했던 아름다운 자연이나 그 속에서 느끼

계 이황 : 四端七情論·聖學十圖·戊辰六條疏』, 살림, 2007, 206~269쪽.)

31) “理能自到”로 설명된 “理到說”은 퇴계의 학설인데(채무송, 앞의 책, 107~109쪽.) 율곡의 理氣 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

32) 율곡이 발휘하고자 했던 리더십은 본질적인 것보다 현상적인 것, 이념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 지적 활동으로 따지고 밝혀야 하는 이치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 리더십의 이러한 경향은 그가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이자 리더로서의 왕이 국가 운영에서 발휘해야 할 리더십에 관한 조언이라고 볼 수 있는 <만언봉사>에도 잘 드러난다. 이 글에서 율곡은 “성학에 힘써 마음을 비로잡을 것”,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정한 도량을 넓힐 것”, “신하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얻을 것” 등과 같은 왕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나 지켜야 할 원칙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글의 많은 부분에서는 “법을 현실에 맞게 변통할 것”, “貢案을 고쳐 세급징수의 해악을 없앨 것”, “選上하는 제도를 바꾸어 공노비들의 괴로움을 덜 것”, “군정을 개혁하여 안팎의 방비를 굳건히 할 것”과 같은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김영두, 『퇴계 VS 율곡 누가 진정한 정치가인가, 역사의 아침, 2011, 132~262쪽.)

는 흥취는 누구나 반드시 보고 느껴야만 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는 퇴계가 배우고 가르치려 했던 보편 이념이라든가 도와 이치가 구현된 세계가 누구나 예외 없이 학습하고 도달해야만 하는 당위적 성격을 갖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또한 율곡이 인도하고자 했던 ‘벗’과 ‘살림’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개성과 독자성을 지닌 개별 주체들로, 자아가 겪고 본 것들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공유하도록 제안된 경지나 정서적 상태가 각자의 취향과 생각에 맞으면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리더가 이끈다고 해서 그와 동질화될 필연성이나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 자율적 주체들인 셈이다.

율곡은 <고산구곡가>의 마지막 두 연에서 “古調를 알 리 업슨이 혼자 즐여 흐노라”(八曲), “遊人은 오지 안이흐고 볼썽 업다 흐드라”(九曲)라고 노래하며 고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함께 즐기고자 했지만 “遊人”들이 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혼자 즐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취지의 탄식을 내뱉는다. 그러나 이 탄식에는 자책이나 원망보다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긍정하는 의미가 강하게 배어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것은 율곡의 리더십이 현실적이면서도 상대적·선택적 성격을 지녔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두 인물의 문학과 사상을 통해 미루어 보건대, 퇴계가 발휘하고자 했던 리더십이 절대적·당위적·규범적·이념적 성격을 갖는다면 율곡의 그것은 상대적·선택적·상황 의존적·현실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하겠다.

4. 결론

이상으로 퇴계와 율곡의 시가 문학의 차이점을 자연관과 인간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두 작가가 보이는 차이점을 철학 및 리더십과 관련지어 논의해 보았다. 논의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퇴계의 <도산십이곡>과 율곡의 <고산구곡가>에는 두 작가의 자연관과 인간관이 잘 드러난다. 자연관에 대해서는 먼저 두 작가가 자연의 어떠한 측면에 주목하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았다. 퇴계가 자연의 보편적·상징적·불변적·관념적 측면에 주목했던 것과 달리, 율곡은 그것의 구체적·가변적·실제적 측면에 주목했다. 아울러 두 작가는 자연에서 보고 느낀 것도 달랐다. 퇴계가 자연에서 어떠한 이치나 이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면, 율곡은 거기에서 흥취를 느끼고 자연을 그 자체로 즐기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에는 퇴계와 율곡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반영되어 있다. <도산십이곡>에서 퇴계가 자기 고백적으로 노래한다면, <고산구곡가>에서 율곡은 타자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표현한다.

자연관에서 나타나는 두 작가의 차이는 이기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이해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계는 본질적 존재인 ‘理’를 중시하는 반면, 율곡은 ‘理’와 함께 현상적 존재인 ‘氣’도 중시하여 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氣’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전자는 자연 속에 내재된 이치에 주목하면서 관념적·상징적 자연을 표현하고, 후자는 현상으로서의 자연에 주목하여 현실적·구체적 자연을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흥취와 즐거움을 느끼며 자연 그 자체를 만끽하고자 하는 율곡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율곡이 표현한 흥취나 즐거움의 정서

등은 ‘氣’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七情’의 한 유형이거나 그와 관련 된 감정이 때문이다.

두 작가의 시가 문학에 드러나는 인간관의 차이 역시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자기 고백적 성격과 자신을 향한 목소리가 지배적인 퇴계 시가와 자신을 향한 목소리와 함께 타자를 향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율곡의 시가의 차이는 ‘理’의 발현인 ‘四端’과 ‘氣’의 발현인 ‘七情’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하는 점과 인간을 동질적 존재로 보는가 아니면 차별적 존재로 보는가 하는 점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사단’을 중시하는 퇴계의 입장에서는 모든 주체들이 자아와 동질적 성향과 자질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곧 타자를 위한 노래로도 얼마든지 바뀌어 읽힐 수 있다. <도산십이곡>이 자기 고백적 경향의 노래로도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 따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험과 생각을 위주로 하여 노랫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기’와 ‘칠정’을 중시하는 율곡의 입장에서는 모든 주체들은 자기 나름의 개성을 지닌 독자적 존재로 인정된다. 각자가 지닌 경험과 생각, 기질과 성향 및 감정은 그것대로 모두 존중될 필요가 있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율곡이 <고산구곡가>에서 고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함께 누리고자 ‘벗’들을 부르고 타자로서의 ‘살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퇴계와 율곡의 문학 및 사상적 차이는 리더십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퇴계와 율곡은 당대 사상, 정치, 학문의 리더들이었던 만큼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에도 그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던진 교훈 또는 교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들이 발휘하고자 했던 리더십에도 일정한 차이점이 있다. 퇴계의 리더십이 ‘理’와 그것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四端’ 중심의 리더십으로 절대적·당위적·규범적·이념적 성격을 갖는다면, 율곡의 그것은 ‘氣’와 그것의 발현으로 이루어지는 ‘七情’ 중심의 리더십으로 상대적·선택적·상황 의존적·현실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율곡이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했던 아름다운 자연이나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는 누구나 반드시 보고 느껴야만 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었으며, 그가 인도하고자 했던 ‘살림’들 또한 리더가 이끈다고 해서 그에 동화될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느낄 필요가 없는 자율적 주체들이었다는 점에서 퇴계의 경우와 구별된다.

참고문헌

- 『陶山詩(陶山六曲)』(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栗谷先生全書』.
『海東歌謠』(경성제국대학, 1930).
- 고정희,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언어적 차이와 시가사적 의의」, 『국어국문학』 141, 2005, 179~228쪽.
- 권두환, 『고전시가론』, 해냄, 1997, 1~376쪽.
- 권정은 「자연시조의 구성공간과 지향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60쪽.
- 김대행, 『고시조작가론』, 한국시조학회, 백산출판사, 1986, 1~410쪽.
- 김영두, 『퇴계 VS 율곡 누가 진정한 정치가인가』, 역사의 아침, 2011, 1~287쪽.
- 김혜숙, 「<고산구곡가>의 정신의 높이」,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411~887쪽.
- 박정민,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42쪽.
- 서원섭,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비교 연구」, 『청계 김사엽 박사 송수 기념 논총』, 학문사, 1973, 289~311쪽.
-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구조와 의미」,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195~229쪽.
- 성기옥, 「<도산십이곡>의 재해석」, 『진단학보』 91, 진단학회, 2001, 247~275쪽.
- 신연우 『사대부 시조의 유학적 일상성』, 이회, 2000, 1~230쪽.
- 신영명, 『사대부 시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372쪽.
- 임주탁, 「우리말 노래 창작의 사상적 기반」, 『국문학연구』 제16호, 국어국문학회, 2007, 59~101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4판』, 제2권, 지식산업사, 2005, 1~516쪽.
- 조창환, 「퇴계·율곡의 시관과 시조」, 『연구논문집』 9권 2호, 울산공과대학, 1978, 119~126쪽.
- 채무송, 『퇴계·율곡 철학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5, 1~334쪽.
- 최영진, 『퇴계 이황 : 四端七情論·聖學十圖·戊辰六條疏』, 살림, 2007, 1~292쪽.

피터 G. 노스하우스, 『리더십입문 제2판 - 개념과 실천』, 이용철 외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3, 1~286쪽.

ABSTRACT

A Study on Toegye(退溪) Yi Whang(李滉) and
Yulgok(栗谷) Yi I(李珥)'s Leadership
through Their Classic Poetry and Philosophy

Yim, Jae-wook

This paper has following three purposes. First is looking at the differences in Toegye(退溪) Yi Whang(李滉) and Yulgok(栗谷) Yi I(李珥)'s classical poetry, second is understanding their poetic differences through their philosophy, and third is considering their leadership on the basis of the contemplation of their poetry and philosophy.

Toegye(退溪)'s Dosansipyigok(陶山十二曲) and Yulgok(栗谷)'s Gosan-gugokga(高山九曲歌) show their view of nature and human. Unlike Toegye(退溪) taked note of the constant and ideational facet of nature, Yulgok(栗谷) taked note of variable and practical facet of nature. Toegye(退溪) caught sight of the ideology or reason from the nature, but Yulgok(栗谷) enjoyed the nature and felt the interesting or pleasure from it. Toegye(退溪) had a keen interest in his own self, but Yulgok(栗谷) had interest in not only himself but also other people.

The differences in their view of nature and human can be understood very naturally from the viewpoint of Yigi(理氣) theory that is a field of Confucian philosophy. Toegye(退溪) regarded highly Yi(理) that belongs to essential existence, but Yulgok(栗谷) thought highly of not only Yi(理) but also Gi(氣) that belongs to phenomenal existence. According to their tendency of thought, Toegye(退溪) expressed the nature ideologically and symbolically but Yulgok(栗谷) expressed it practically and concretely. The interesting and pleasure which Yulgok(栗谷) felt from nature also are associated with Gi(氣), because they are some sorts of Chiljeong(七情) that belongs to Gi(氣).

Toegye(退溪) thought highly of Sadan(四端) which is four fundamental mind in Confucianism and belongs to Yi(理). In the sight of Toegye(退溪)'s thought it is regarded that all people have same inclinations and talents with a certain person. So Toegye(退溪) poetry that sings about himself can be read as a song for other person. On the other hand Yulgok(栗谷) thought highly of Gi(氣) and Chiljeong(七情). In the sight of Yulgok(栗谷)'s thought all people are regarded as individual existences that have personalities of their own. So Yulgok(栗谷) called friends and payed attention to other people in Gosangugokga(高山九曲歌)

These differences in their poetry and philosophy are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leadership. Toegye(退溪)'s leadership driven from the thought emphasizing Yi(理) and Sadan(四端) had absolute, normative and ideological orientation. But Yulgok(栗谷)'s leadership driven from the thought emphasizing Gi(氣) and Chiljeong(七情) had relative, selective and realistic orientation.

Key Words Korean classical poetry, Toegye(退溪) Yi Whang(李滉), Yulgok(栗谷) Yi I(李珣), Dosansipyigok(陶山十二曲), Gosangugokga(高山九曲歌), Yigi(理氣) theory, Sadan(四端), Chiljeong(七情), Leadership

논문투고일 : 2016. 9.30
심사완료일 : 2016.11. 2
게재확정일 : 2016.11.15